

경남 김해시 안양로
 <수범농장> 홍수범 대표

변함없는 마음가짐! 한우 건강의 최고 비결!

글 김대진 사진 엄태현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모 박사의 연구 결과를 시청하다가 “그래 이거다!”라며 해오던 양돈 사업에서 한우로 전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남도 김해시 안양로 <수범농장>의 대표 홍수범(71) 씨다. 이후 27년간 특유의 유쾌한 웃음으로 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김해 대표 축산인, 처음 대면할 때부터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큰 상을 받은 이유를 묻자, 그저 “어찌다가 보니...”라고 짧은 답과 미소를 보내준다. 주변에서 웃음과 정성으로 소를 키운다는 평이 많은 그에게 그 비결을 자세히 물어본다.



06:00 눈뜨자마자 소 생각이 나더라

매일 아침 6시, 홍 대표는 알람 시계 없이 기상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후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곧바로 농장으로 몸을 옮긴다. “아침을 먹고 나면 꼭 소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손가락을 내려놓으면 몸이 농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수범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하는 일은 사료를 주는 일이다. 이 시간이 되면 농장의 모든 소들이 홍 대표를 직접 배합한 완전발효사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홍 대표가 처음 해오던 농장은 한우가 아닌 양돈이었다. 1989년도, 모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상구 박사의 말 한마디(한우추천)에 해오던 양돈 사업을 접었다. 한우가 더 발전될 것이라는 주변의 평도 있었다. 열 마리 남짓한 한우를 키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적성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수범농장>은 여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명 농장이 되었고, 소의 수도 어느새 200마리가 넘었다. 그 어느 축산업보다 한우에 애착이 가서일까, 홍 대표의 아침은 유쾌하면서 활기가 넘친다.

11:00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 탈이 없더라

오전 시간 내에 농장의 모든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축사장을 살펴본다. 소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을 둘러보고, 상태도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본다. 특히 소의 눈을 직접 보면서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은 흡사 소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즘 들어서 모든 기술이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한우 축산에서의 기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그래서인지 소를 바라보는 홍 대표의 눈이 다른 축산인과 다른 느낌이 든다. 점검이 끝나자, 사료 배합에 들어간다. 3일에 한 번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운이 좋게도 오늘이 그날이다.

김해시 축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정보를 모아 만든 <수범농장>만의 특별한 사료 배합이 시작된다. 큰 여물 2통과 여러 영양제, 사료를 배합기에 넣는다. 특히 스키로더 기기로 큰 여물과 사료를 옮기는 모습은 SF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관이다. 커다란 기계로 배합기에 옮기는 일은 남편인 홍 대표가 도맡고, 배합 비율 계산과 재료 준비는 아내인 신정옥(62) 씨가 맡고 있다. 200여 마리를 키우는 일이 들어서 하기에 버겁지만, 자식처럼 소를 아끼는 마음에 늘 행복하다는 홍 대표 부부. “좋은 것들만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래야 우리 소들이 식사도 잘하고 큰 병도 없지요.”





16 : 30 비결? 종이 한 장 차이더라

“비결은 딱히 없어요. 그저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경 써서 키운 거죠.” 홍 대표는 작은 부분이 한우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고, 겨울에는 이틀에 한 번 갈아줄 정도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를 빠짐없이 꼭 지켜줘야 하는 것! 그것이 축산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사람에게 물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듯, 소에게도 물은 건강의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한다면 한우 키우는 일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는 무엇일까? <수범농장>만의 성공 중 아주 작은 팁을 발견했다. 소들이 네모난 박스를 핥아먹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네모 모양의 미네랄 블럭이었다. “요즘 사람들 건강을 생각해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고 있죠? 저는 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김해시 축협을 정보로 만든 <수범농장>만의 발효사료, 여기에 잘 관리된 축사장과 물, 영양소 등이 더해져 건강한 한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추가한다면 바로 홍 대표의 마음가짐! 축산인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바른 마음이 있어야 축산물도 바르게 크다고 한다. ☺

빠른 축산 성공을 돕는 정보 교류

홍수범 대표의 주위에는 소 박사들이 많다. 김해시 축협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여러 축산인들까지 <수범농장>의 성공에 보탬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에 홍 대표는 젊은 축산인 및 축산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체 및 협회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의문점이 있을 때 이를 같이 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농장 운영이 수월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 교류의 힘이라고 전했다. 그로 인해 홍 대표도 많은 덕을 보고, 지금은 도움을 돌려주고 있다. 혹시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정보를 나눠보자.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지역 축산 협회의 정보는 바로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